

키르기즈스탄에서의 캠퍼스 사역

- 김만복 선교사 / 2003. 6. 27 -

안녕하세요? 저는 키르기즈스탄에서 한국어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 김만복입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키르기즈스탄 대학생들의 생활모습과 캠퍼스 사역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키르기즈스탄은 이슬람이 전통 종교이며 개발이 낮은 국가이지만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개방된 국가입니다. 구 소비에트 시스템이 무너진 이후 특별한 지하자원이 없는 이 나라는 대외 개방 정책을 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현실의 부패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음으로 인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산주의 이념이 무너진 이후 하나의 사상이나 종교에 집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상과 종교를 접촉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심령이 가난하고 열려있는 이들에게 지금이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길 원하고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구직이 어려운 이들은 한국어를 배운 후에 비교적 일자리가 많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거나 한국 선교사를 돕는 일로 또는 NGO에서 러시아어나 키르기즈어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비해 한국어 교수는 그 숫자가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비록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역사 등을 가르치며 한국어를 통해 기독교적 가치관을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애정을 갖고 수업을 하다 보면 80분의 수업 시간이 짧게만 느껴집니다.

또 수업 시간 외의 교제와 상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한번씩 집으로 초대해 이들에게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교제하다보면 어느새 이들과 가까워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저의 조그마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할 뿐 아니라 감동도 받습니다.

한국에서 단기 팀들이 오면 한국어과 학생들과 함께 '한국어 캠프'를 개최합니다. 평소 학교에서 문법 위주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한국어 캠프를 통하여 한국어 연극, 한국 노래 배우기, 인형극 감상, 한국 영화 감상 및 소감 나누기, 장기 자랑 그리고 한국 청년들과의 스포츠 등을 통하여 살아있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청년들과 우정을 맺습니다.

이 곳의 한국어과 대학생들은 한국어 캠프를 통하여 많은 유익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우정이 맺어지면 헤어진 후에도 E-메일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우정을 발전시켜 나가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의 단기팀들이 키르기즈스탄을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곳의

한국어과 학생들을 섬기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클럽과 컴퓨터 클럽을 열려고 합니다.

소수의 학생들을 잘 엄선해서 한국어와 컴퓨터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단기와 장기로 함께 일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키르기즈스탄의 미래는 키르기즈스탄의 대학생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 키르기즈스탄의 대학생들을 섬김으로 키르기즈스탄의 미래를 바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 기도제목

1. 많은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키르기즈스탄의 대학생들을 섬기게 하소서.
2. 키르기즈스탄의 대학생들이 좌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소망을 갖게 하소서.
3. 키르기즈스탄의 대학생들이 복음을 들고 타 민족, 타 국가에까지 나아가게 하소서.
4. 한국어 클럽과 컴퓨터 클럽이 잘 준비되어 열리며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소서.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